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1호 / 2026년 08월 13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임단협 본격 시작, 늦은만큼 속도와 내용 중요

- 사측 개악안 철회해야, 근로조건 저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어!

시대가 좋아진 것인지, 노사관계가 평준화된 것인지 사측도 안을 제출했다.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사측이 안을 제출하는 것에 특별한 규제 조항은 없다. 그렇다고 제출해도 된다는 조항도 없다. 제재 조항이 없다는 것을 사측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취지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측이 제출한 안은 기존 단협을 후퇴시키는 요구이기에 분명 개악안이다. 기업노조에서는 사측의 의도가 관철되었는지 몰라도 금속 전환 이후에는 결코 개악안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 임금은 제대로,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안정적 고용보장!

지난 2차 교섭에서 회사의 실적 보고가 있었다. 자료를 통해 26년 상반기 실적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했다.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여전히 비용부담을 거론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측의 엄살이 올해도 통할지 두고 볼 일이다.

노동조합의 26년 임단협 요구의 중심은 △임금은 제대로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안정적 고용보장이다. 월급제 이후 정체되고 있는 임금 구조를 회복하고, 2012년 이후 기능직 신규채용이 0명이라는 비정상적인 기업 운영 방식을 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 대표이사의 위임 권한을 노조 임박음으로 사용한 총괄대표!

회사가 개악안을 제출했다. 조합 활동과 전임자 축소 요구가 핵심이다. 전임자가 줄면 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그리고 노동조건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속셈이다.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사측이 얻을 이익은 무궁무진하다. 임금과 복지가 축소된 13년 기업노조가 증명하고, 이번 중대재해만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입을 막아야, 사측이 원하는 생산 중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중대재해, 정말 남의 일입니까?

지부장 이현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오염하는 유가족 앞에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금속으로 전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현장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조, 회사 눈치를 보며 할 말 못하는 노조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중대재해 문제로 임단협이 뒤로 밀리는 거 아냐?” “겨우 하청노동자가 죽었는데, 노동조합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스물여덟 살 청년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현장을 제대로 바꾸지도 않고 다시 기계를 돌린다면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를 지키기 못하면서, 조합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판교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성현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유가족도 함께했습니다. 대표이사 앞에서 청년 노동자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시 데려오세요.”

산보위에서 노동조합 요구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고, 위험한 작업은 제대로 고치고, 생산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중대재해를 통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노동조합에 힘이 없으면 조합원의 안전도 지킬 수 없고 임금과 복지, 우리의 일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노조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올해 임단협을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